

서울 삼청동 북촌 마을 언덕에 가정집을 개조한 신생 갤러리가 최근 개관했다. '아늑하고 조용한 작은 공간'을 의미하는 '누크(nook)' 갤러리다. 이곳에서 회화 작가 노충현과 설치 작가 김윤수는 '지금 그리고 저편'이라는 주제로 2인전을 연다.



노충현 作 '얼음들'

익숙한 세상 낯설게 보기

노충현 김윤수 2인전 '지금 그리고 저편'展

서울 한강 주변의 스산하고 메마른 풍경을 그리는 노충현은 이번 전시에서 풍경보다 인물이 좀 더 부각된 신작을 펼쳐 보인다. 흐릿한 화면은 좀 더 명확해졌고 인물이 부각되며 서정성이 한층 가미됐다.

화폭 속 인물은 길이 끝나는 곳에 서서 저편을 응시하거나 서성거린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그곳에 와 있는가. 저편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잊었거나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폭설' '얼음들' '어제 내린 눈' '강가에서' 등 한없이 고요하고 적막한 풍경

이 관람객들에게 고요한 사유의 시간으로 안내한다. 설치 작가 김윤수의 입체작품 '바람의 표면'은 파스텔톤의 노충현 그림과 적잖은 어울림을 보여준다. 작가는 영화비닐수지

삼청동 누크갤러리서 29일까지

(PVC)를 이용해 사람 발 모양의 입체작품을 내놓았는데 상상 속 저편 어딘가로 꾸벅꾸벅 걸어가고 싶은 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수직 구조인 사람에게 발은 가장 하위에 있으며 죽음의 상태일 때 비로소 머리

와 평등하게 놓인다"며 "발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곳으로 이끈다"고 지적한다. 모든 풍경은 인간 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실을 일깨워준다. 그래서일까. 그의 작품에서 발은 섬이 되고 뱀이 되기도 한다.

조정란 누크갤러리 대표는 "두 작가는 무척이나 생각이 많이 닮았다"며 "'지금 여기'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저편'을 생각하는 두 작가가 한 공간에서 만나 다양한 풍경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시는 29일까지.

(02)732-7241 이향희 기자